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농업인단체와 상생 거버넌스 회의

성낙성 기자 jebo8585@ksmnews.co.kr 입력 | 수정 2024.02.14 20:08



↑↑ 농어촌공사 성주지사서 농업인단체와 상생거버넌스구축을 위해 회의를 가졌다 사진/농어촌공사 성주지가 제공

[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지난 14일 지사 회의실에서 군내 농업인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 거버넌스’회의를 가졌다.

이날 지사는 쌀전업농 성주군연합회 정주환 회장, 후계농업경영인성주군연합회 배선호 회장, 한국여성농업인 성주군연합회 정순라 회장, 친환경농업인 성주군연합회 성낙원 회장과 관계자들 및 공사 직원들로 구성된 상생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2024년 공사의 사업방향에 대한 설명과 현안사항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생 거버넌스는 공사와 농업인단체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역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농정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참석자들은 농어촌공사의 주요사업인 농업용수관리, 농업기반시설조성, 농촌지역개발, 농지은행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우리나라 농정의 최일선 조직으로서 공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여러 제안과 조언을 통해 지역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돈문 지사장은 “농업인단체는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공사는 농정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서로 상생하는 관계에 있다면서, 공사가 편리한 농업기반과 쾌적한 농촌을 조성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업인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